

## [목회자 모임] 생명의 연합

2019. 1. 4. 이현래 목사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한 사람만 창조했다는 것이 참 큰 축복이다.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들어 놓았으면 굉장히 복잡할 것인데 딱 한 사람만 창조했다는 것이다.

세상에 사람이 많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한 사람이다. 심지어는 이제 예수님을 볼 때도 하나님 같이 이적을 행하던 예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도 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사람들에게는 헛갈렸던 것 같다. 지금도 헛갈리고 있는 것 같다.

물위를 걷기까지 하시던 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까지 하시던 분은 하나님 같은 분이다. 하나님이라고 더 하겠는가? 그런 분을 보고서 따라가던 사람들이 뛰어내리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보고 그냥 가버렸다. 그러니까 두 사람 같다.

언제는 하나님 같은 사람이고, 언제는 보통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고, 그런데 그것은 둘이 아니고 한 사람이다. 예수는 두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이다. 이적을 행한 사람이나 이적을 못 행하고 죽은 사람이나 둘 다 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두 종류의 사람을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나님 같이 된 것도 그 사람이고, 매달려서 할 수 없이 죽은 사람도 그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불러내서 인도하는데 어디로 인도하는가? 한 사람 안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이적을 행하는 사람에게로 인도하면 십자가에 죽은 사람에게 갈 수가 없고, 십자가에 죽은 사람에게 인도하면 이적을 행하는 사람에게 갈 수가 없는 것 같다.

지금 아마 기독교 신앙 속에 교리적으로는 예수를 하나님이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믿음의 생활 속에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고 사람이라는 것은 없다. 그런 개념이 인간에게는 없다. 하나님도 되고 사람도 된다는 것은 이론이지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모른다. 그런 것을 본 일이 없고 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다. 결국은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게 마련이다.

한쪽에서는 그냥 순수하게 인간이라는 사람들이 생기고, 한쪽에서는 왜 인간이나 신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생긴다. 좀 보수적이라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신이라는 쪽에 기울어져 있고 자유주의 입장의 사람들은 인간 쪽에 기울어져 있다. 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아주 어렵다. 어떻게 이것을 균형을 맞추겠는가.

사람을 예수계로 인도하는데 어디로 인도하느냐는 것이다. 신이라는 쪽으로 인도해야 되는 것인가? 인간이라는 쪽으로 인도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자연스럽게 생긴다. 이 문제 때문에 싸움도 많이 한다. 실제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이 문제 때문에 싸운다. 그렇지 않으면 싸우겠는가.

우리나라에서 해방 이후에 기독교가 갈라진 이유가 이것 때문에 갈라졌다. 한편에서는 사람이다, 한편에서는 신이라고 해서 갈라진 셈이다. 예수는 성령으로 낳은 사람이니까 신 쪽에 가깝다. 한쪽에서는 아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사람이 낳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둘로 갈라졌다. 기독교가 둘로 갈라진 것이다.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인도하는데 잘못 인도하면 다른 데로 보내 주는 것이다. 그것은 자기도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 자기도 그 어느 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사람을 이끌어 넣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 우리는 헛일하고 있는 것이다. 헛일을 할뿐만 아니라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이것이 한 사람이다. 신적인 것 같은 사람도 그 사람이고 인간적인 것 같은 사람도 역시 그 사람이 아닌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다. 그 사람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것은 한 사람만 만들었기 때문이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롬5:12).”라고 했다. 단순히 생각하면 죄를 가져온 사람은 누구이고, 의를 가져온 사람은 누구냐는 것이다.

예수는 의를 가져온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면 죄는 누가 가져왔는가? 아담이 가져왔다. 그러면 예수와 아담은 다르냐는 것이다. 아담과 예수는 같은 사람이다. 어떤 데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한다. 결국 두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이다. 절대로 둘로 쪼개질 수가 없다. 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있는가?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지 두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 때, 다른 사람이 또 있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사람은 아담밖에 없으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한 것이다. 그러면 뒤에 오신 예수는 아담이 아니고 다른 사람인가? 뒤에 오신 예수도 아담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찾고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잘못되어서 ‘두려워 숨었습니다.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나무 뒤에 숨은 사람하고 숨지 않은 사람하고 또 다른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자기를 다 내 놓은 사람이고, 아담은 나무 뒤에 숨은 사람이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인가? 다른 사람이 아니다. 한 사람이다.

우리가 이 사람을 알고 이 사람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찾는 사람, 그 사람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우리는 잘못하면 아주 큰일 날 일이다. 사람들을 불러서 영똥한테 보내면 어떻게 하겠는가? 자기도 못가고 남도 못하게 한다는 말처럼 자기도 다른 길로 가고 남도 다른 길로 가버리는 것이다.

예수를 아는 것이 참 사람을 아는 길이다. 다른 사람이 많이 있어도 예수를 아는 것만이 참 길이다. 왜냐하면 참 사람은 예수이기 때문이다.

나는 아담의 후손들이 빛나가던 세대에 살았던 사람들이다.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다. 900살씩 살았던 시대에 우리가 살았고 그렇게 못 살았지만 네피림의 시대에 우리가 살았고, 바벨의 시대에도 우리가 다 살았다. 우리는 그 세계에 살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부르심이 있어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따라서 부름 받은 사람들이 되었다. 그러면 그것도 두 사람인가? 두 사람이 아니고 도로 또 한 사람이다. 바벨로 가던 사람이나 부름 받은 사람이나 한 사람이다. 거기서 우리가 부름 받았다. 그래서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부름 받은 사람이 된 것이다.

우리를 어디로 불렀는가? 처음에는 어디로 불렀는지 모르고 부름 받은 자리가 좋았다. 왜냐하면 100살이 되어서 후사를 얻지 못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찾아와서 후사를 주었다. 그것이 너무나 좋았다. 100살이 되어서 후사를 낳지 못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찾아와서 다 포기하고 믿음도 없고 이런 사람을 찾아와서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초창기에 보면 “네 몸에서 날자가 네 후사가 될 것이다.” 그 말을 믿었다고 해서 의로 여겼다고 하는데 로마서의 첫 부분이 그것이다. 우리는 우리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 설명을 했다.

여기서 머물러 버리는 종교가 있다. 믿음으로 의롭다했다.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믿음만 가지고 살다 보면 모순이 생긴다. 해결 안 된 문제가 또 생긴다. 그래서 성결파들이 생겼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믿음만 가지면 되는가? 믿음만 가지면 된다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비난했다. 너희는 아무것도 내놓는 것이 없으면서 믿으면 천당을 가고 우리는 지옥 간다는 말인가? 이런 비난을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이 욕을 얻어먹는 것이 그것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행위는 보면 안 믿는 사람만 못하니까 욕 얻어먹기 딱 맞다. 행위도 그만큼 따라가면 그런 말을 못하는데 행위는 못 따라 간다. 자연히 이중인격자니 독선자니 이런 말을 듣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를 싫어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다. 말만 자기들은 천당 간다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으로 본다. 자기들도 우리와 다른 것이 없다는 것 때문에 미워하지 다른 것이 없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것이 참 좋았는데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니 얼마나 좋은가? 좋은데 그것을 주장하고 다니면 욕한다. 너는 입만 나불거리지 뭐가 있느냐 하고 욕한다. 한국에서는 유독이 그것이 많다. 왜냐하면 ‘예수천당, 예수천당’했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천당 간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생명의 세계로 인도한다. 초반부터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했는데 그것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세계로 우리를 불렀다. 인도했다.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니까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생명의 문제이다.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이니까.

이제 여기서 연합의 세계의 계시가 열리게 되었다. 내가 뭐 믿음만 있으면 홀로

서는 것이 아니구나.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데 이 문제가 아주 간과되고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 상당히 뒷전에 밀려 있다. 아예 모르는 사람도 있다. 왜냐하면 다 믿음, 믿음 한다.

이번에 신년 메시지를 방송국에서 여러 사람에게 들어봤는데 다 그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라는 것이다. 아직도 지금 로마서 전반부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성결생활을 한다는 사람을 보니까 참 생활을 조심해서 한다. 그런 계통의 선교사하고 생활을 같이 해봤는데 정말 그 사람들은 경건하다. 아이들을 세상에 물든다고 TV도 못 보게 한다. 그렇게 조심해서 산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아주 고지식하고 답답하다고 한다. 기독교인들까지도 그런 사람을 보면 고지식하고 답답하다고 한다.

그런데 개인 생활을 하는 것을 가보면 아주 조심조심 산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 하고 끝난 사람들하고 성결의 생활이 필요하다는 사람들과 아주 생활이 다르다. 부러운 것도 있고 존경스러운 것도 있고 그렇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까지 되느냐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느냐 인데 역시 안 되기는 마찬가지이다.

생명의 연합,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이것이 보이지 않으면 그 수준에서 믿음으로 사느냐, 행위로 사느냐 이 수준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런데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하면 또 하나의 어려움이 아니겠느냐고 하는데 그것은 어려움이 아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우리 대신 죽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 대신 죽은 것이 무엇인가? 그 죽음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이다.

내 대신 죽었다는 말이 거래상의 문제가 아니다. 그가 죽으셨는데 내가 거기 있더라는 것이다. 나도 거기 있다. 그런데 나는 죽은 일이 없다. 나는 십자가를 진 일도 없고 죽은 일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단지 그분의 죽으심 안에 내가 언제 거기 들어가 있더라는 것이다. 그런데 원래부터 있었다. 내가 새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들어간 것도 아니다. 원래부터 거기 있었다.

우리를 원상복귀 해준다. 환원시켜 준다. 내가 원래 있었는데 나는 선악과를 먹고 바벨탑으로 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부름 받아서 지금 십자가로 왔다. 아브라함의 100세는 예수의 십자가이다. 이삭의 눈먼 상태는 예수의 십자가이다. 야

굽이 빈손이 된 것은 십자가이다. 모두 그리로 가는 길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불러서 결국은 예수 안으로 불러 모았다. 불러 모아놓고 보니까 한 사람밖에 없다.

예수 안에 가면 한 사람뿐이다. 예수가 한 사람이듯이 우리 모든 인류는 한 사람이다. 바벨로 갔던 사람도 그 사람, 아브라함을 따라서 온 사람도 그 사람이다. 결국은 다 한사람이다.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한 사람을 부른 것이다. 너 어디가 있느냐? 너 어디가 있느냐?

이제는 예수 안에서는 두 사람이 나올 수 없다. ‘나는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없고 ‘나는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데, 내가 어디 있다고 하겠는가? 변명도 불가능하고 감추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냥 폭로된 것이다. 감춰 있던 사람이 폭로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이상하게 얼마나 시원하지 모르겠다. 마치 꼭꼭 숨어있던 사람이 어떤 일로 확 깨져서 폭로된 것처럼 시원하다. 아주 시원하다. 내 자신이 감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시원해져버린다. 궁둥이만 내놓고 숨는 아이들과 똑같다. 다 알고 있는데 나 혼자만 애를 쓰고 있었는데 그냥 확 벗겨버리는 바람에 내가 드러났다. 막상 드러나 보니까 시원하다. 원래 있는 사람이 그대로 나오니까 아주 시원하다.

그리고 우리가 원래 어디 있었던가를 알게 해주고 어디서 왔는가를 알게 해주고, 우리가 돌아갈 자리로 돌아가게 해주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일이다. 나대신 죽었다. 나를 위해 죽었다.

옛날에는 나대신 죽었다는 것을 모르겠더라. 어떻게 나대신 죽었는가를 모르겠더라. 나 위해 죽었다는 것도 모르겠더라. 어떻게 나를 위해 죽었는지를 모르겠더라. 그런데 이제는 확실하다. 나를 위해 죽었구나. 나대신 죽었구나. 저 안에 있는 나를 폭로하느라고 자신이 죽었구나. 하나님이 아무리 물어도 너 어디 있느냐고 물어도 대답을 못 할 사람이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면 대답을 못할 사람들이다. 확실한 대답을 못한다.

정신병자들을 만나보면 공통적인 것이 있다. 절대로 자기 진심을 말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지만 자기는 절대로 내놓지 않는다. 뭔가로 변명을 해서

자기를 감추고 있다. 사람은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의사를 만날 때 그것을 맞추는 의사를 만나면 터놓고 말을 한다. 나는 이러이러 해서 여기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절대로 자기를 내놓지 않는다. 거짓말만 계속 한다.

정신병에 시달릴 때는 입안에 백태가 끼어서 아무것도 못 먹게 된다.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밥에 독을 넣어 놓았다. 그래서 나는 이 밥을 못 먹는다는 것이다. 내가 입이 이래서 밥이 안 들어간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밥에 독을 넣었기 때문에 못 먹는다는 것이다.

참 이상하다. 왜냐하면 자기 속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자기가 공개되는 것이 두려운 것이니까 그것을 감추려고 한다. 그래서 밥을 넣어주면 독을 넣었다고 뱉는다. 그런데 그런 상태가 되면 입안을 보면 실제로 못 먹게 되어 있다. 밥이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데 나는 입맛이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면 자기 약점이 드러나니까 밥에 독을 넣었다고 한다. 정신과 의사와 둘이는 흥정을 한다. 네가 나를 아는가 모르는가 보다. 환자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예수 안에 오지 않으면 사람은 누구나 다 거짓말이다. 다 거짓말한다. 자기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깊은 속에 감춰 있는 자기는 내놓지 않는다. 그것이 심해지면 정신병자가 되는 것이다.

나는 여러 사람을 거쳐 오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하구나. 속에는 너무너무 불안한 것이 있어서 누가 자기를 알 까봐 떨고 있다. 그래서 다른 말을 해 버린다. 아담이 그런 짝이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니 어디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없다.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같이 되려고 했으니까 그것이 말이 되는가?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나무 뒤에 숨었다. 자기 대신 나무 뒤에 숨었고, 이것이 천 년된 나무라고 소개를 한다. 솔직하게 말하면 하나님 같이 되려고 했던 것인데 그 말을 차마 하나님 앞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못한다.

내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했다는 것을 아는 것도 큰 의미를 안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그냥 알겠는가? 아무도 그것을 모른다. 우리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아무도 인정을 하지 못한다. 내가 언제 하나님 같이 되려고 했는가? 더군다나 기독교인 같으면 언제 내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했느냐고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

배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했는데 내가 언제 하나님 같이 되려고 했느냐고 하지 않겠는가?

자기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한 것을 사람은 모른다. 어디 가서 알 수 있는가? 예수 안에 가서 알 수가 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뛰어내리지 못하는 거기 가서 내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하나님 같은 사람도 저렇게 되어 있다. 물 위로 걸어갈 때 누가 사람이라고 했겠는가? 오병이어로 오천 명을 먹일 때 누가 그것을 사람이라고 했겠는가? 신이다. 저것은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는가?

서커스를 하는데 아주 어려운 난이도를 해결하는 것을 보고 체육학과 교수가 감탄을 하면서 야 저것은 신이라고 했다. 그런데 하물며 오병이어로 5천명을 먹이는데 신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는가? 솔직하게 말하면 당연히 신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다. 그냥 사람으로 죽었다. 그냥 사람인 것이다. 거기서 우리 인생이 다 폭로되었다. 하나님 같다고 칭송을 받았던 사람도 저렇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감추겠는가? 내가 하나님 같이 되려고 했던 것을 어떻게 감추겠는가?

사람들을 모두 예수 앞으로 이끌어야 한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사람들을 예수 앞으로 이끌어 오는 것이다. 내게 길을 열어 주었던 그분도 결국 나를 예수 앞으로 이끌어 온 것이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았다. 그것을 아주 기적이라고 생각했다. 어려서부터 들은 이야기이다. 그런데 그분은 그것을 통해서 나를 예수 앞으로 인도했다.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 예수 앞으로 가는 길이다. 80세의 모세는 예수 앞으로 간 사람이다. 자기는 다 없어지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그것만 남았다. 만약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았다면 하나의 늙은이일 뿐이다. 애굽에서 실패하고 나온 하나의 늙은이일 뿐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니까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었다.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만 사용할 수가 있다. 다른 사람은 사용할 수가 없고 하나님만 그를 사용할 수가 있다. 혼자 기도하면서 중얼거렸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사용



하지 않으면 나는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했다.

사용하는 그것이 이제 내 인생이 된다.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그분이 나를 사용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사용하지 않으면 등신이다.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면 등신이다.

세상을 볼 때 안타까운 것이 그것이다. 이 등신을 가지고 자랑하고 살고 있으니 그것이 안타까운 것이다.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쓰실 수 없는 자기를 다 자랑하고 있으니 그것이 한심한 것이다.

십자가에서 발견된 나는 하나님밖에 쓸 수 없는 사람이다. 어떻게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가 나를 쓰시면 내가 쓰이는 것이 영광이다. 어떻게 쓰이든지 쓰이기만 하면 영광이다. 아무것도 내가 할 일이 없으니 내 할 일이 없고, 내 일이 없어져버리니까 자기 일을 쉬느니라 하고 했다.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는 것처럼 자기 일을 쉬느니라 하고 히브리서에서 그랬다.

그런데 자기 일을 쉬는 것이 아니고 내 일이 없다. 자기 일이 없다. 할 일이 없다. 내 할 일이 없으니 복잡한 것이 없어지고 인생이 너무 간단해진다. 내 할 일이 많으면 복잡하다. 그런데 내 할 일이 없으니 간단하다.

예수 앞으로, 예수 앞으로, 그 한 사람 앞으로 모으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다. 우리가 교훈을 배워서 수양을 해서 그 어떤 사람이 되려고 생각한다.

신년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수양하라는 것과 똑같다. 금년에는 이렇게 수양하라는 말과 다를 것이 없다. 스님들도 나와서 하고 목사들도 나와서 하는데 새로운 율법이고 새로운 수양법이다.

신약시대의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인데 차라리 그러려면 구약 시대가 더 낫다. 기록된 율법을 모두 실천하면 되니까 더 쉽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라,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래서 내가 들으면서 자기도 못하면서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도 옛날에는 했지만 나도 그랬을 것이 아니겠는가? 옛날 같았으면 신년 메시지가 어떻게 하고, 금년에는 어떻게 하자고 하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그것을 해놓으면 자기가 먼저 심판을 받는다. 자기가 한 말로 자기가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런데 모르니까 한다. 그것은 수양의 세계이다. 이렇게 합시다. 좋은 일이다. 굉장히 좋은 일인데 수양이다. 생명의 전환이 아니고 수양이다.

불교나 뭐나 매 한가지이다. 수양해서 뭐가 된다면 굳이 성경이 있는 것을 지키려고 할 필요가 없다. 불교에서는 그래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제시한다.

그런데 기독교 메시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주 포괄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쉬운 것이 아니고 굉장히 어렵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면 그것이 쉬운가? 안 된다. 애쓰는 사람도 많고 노력하는 사람도 많다. 많은데 말하기 외람되지만 결국 수양하는 세계이다.

예수 앞에 오면 수양하는 것이 아니다. 내 일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다. 그것은 수양과 다른 일이다. 나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이 쓰시면 안 되겠는가?

그래서 한 사람만 지었다. 너무 좋다. 좀 다른 사람도 지어 놓았더라면 아주 골치 아플 뻔 했다. 한 사람을 더 지어 놓았더라면 아주 골치 아플 뻔 했다. 이 한 사람을 아는데 평생을 아는데, 두 사람을 알려면 어떻게 알겠는가? 예수 앞에 오니까 단순해진다. 이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주 단순해진다.

단순해야 문제가 해결되지 복잡하면 문제 해결을 못한다. 여러분이 상담을 해보면 근본을 알면 상담하는 것이 쉬운데 근본을 모르면 상담이 어렵다. 근본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것이 약은 딱 한가지뿐이다. 무슨 병이든지 완치하는 약은 한가지뿐이다. 약이 많다는 것은 치료가 안 된다는 뜻이다.

옛날에 문둥병이 치료가 안 되었다. 얼마나 약이 많았는가? 사람 골속에 들어있는 물을 마시면 낫다든지 어디 가서 아기를 잡아먹었다든지 이런 소리가 나왔다. 약이 얼마나 많으면 그렇게 되겠으며, 얼마나 안 나왔으면 약이 그렇게 많아지겠는가? 그런데 지금은 알약 한 알이면 해결이 된다. 아무 약도 필요가 없고 그 약 하나만 해결이 된다. 천병이라고 하늘이 준 병이라고 했던 그 병이 알약 하나면 다 해결이 된다.

인생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하늘이 준 병이다. 사람이 지금 앓고 있는 병은 하늘이 준 병이다. 천사가 준 병이니까 하늘에서 온 병이다. 이 병을 무슨 수로 고치

겠는가? 그 복잡한 병을 어떻게 고치겠는가? 사람마다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다 많다. 교회에 온 사람마다 다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끝이 없고 다 해결되면 가버린다. 자기 문제 해결하러 온 사람은 자기 문제 해결 하면 가버린다. 살만하면 가버리는 사람을 내가 많이 보았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아주 도사처럼 산다. 들은 말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것을 써 먹고 산다.

자기 문제에서 떠나게 해야 된다. 하나님 밖에 쓸 수 없는 사람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예수 앞으로 데리고 와야 한다. 예수 앞으로 다른데 가면 안 된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앞으로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 우리 사역자들이 할 일이다. 부름 받은 사람이 거기 와보면, 여기 오면 다 해결이 되는 것이 알아진다.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을 그곳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 내 문제가 거기서 해결되어 버리니까 다른 사람도 그곳으로 불러와야 한다.

어느 병원에 가서 병이 나은 사람은 다 그 병원으로 인도한다. 그 병원에 가니까 잘 낫더라고 인도한다. 마찬가지로이다. 맛있는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그 음식점으로 사람을 소개한다. 거기 가니까 진짜 맛있는 것이 있다.

우리가 내 문제가 원천적으로 해결되는 자리로 예수 앞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 새해 복 받는 길이다. 영원히 복 받는 길이다. 이것이 신년 메시지이다. 동역자들에게 보내는 신년 메시지이다. 예수 앞으로 가면 문제가 다 없어진다.

교회에서도 다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 예수만 알게 하면 모든 문제는 저절로 다 사라진다. 이 문제 저 문제 다 이야기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문제가 또 생긴다.

정개개혁 때 있던 문제는 지금까지 있고 다른 문제는 또 생긴다. 시대마다 나라마다 사람마다 문제는 계속 생긴다. 그것이 끝이 없다. 그것은 세상에게 해결하라고 하고, 우리는 오직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야 한다. 한 사람 앞으로만 인도해야 한다.

여러 사람 앞으로 인도하면 안 되고 오직 한 분 앞으로만 인도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내가 여러분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하는 말이다. 괜히 고생하지 말고 가장 쉽고 빠른 길이다. 예수 앞에 가는 길이다. 가장 쉽고 빠른 길이다. 어떻게 인도할 것인지 그것은 나는 모르겠다. 여러분 나름대로 할 일인데 하여간 그것이 가장 쉽고도 빠른 길이다.

모든 인간을 다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11:28).” 그분에게 가면 모든 짐이 다 없어진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어진다. 아무것도 없다.

금년 한해도, 한해라고 하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었으니까 시간을 주실 때까지 이 쉽고도 편한 길을, 그리고 완전한 길을, 나는 전하고 싶다. 사람들 고생시키지 말고 괜히 잡아다 놓고 고생시킬 것이 없다. 안될 것을 계속 시키면 고생만 하지 뭐하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고달픈 인생들을 불러다 놓고 또 고달프게 만들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쉽고도 편한 길로 바로 직행하는 길로 한 사람이라도 인도하자. 인도하면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뭐가 안 되겠는가?

감사합니다.